

# 이스라엘·이란 사흘째 충돌...6차 핵협상 결국 취소

### 이스라엘, 핵·군사·에너지시설 공습...이란도 예루살렘 등 보복 악순환 국제사회 중재에도 진정 기미 없어...양국 전면전 위협 담은 거친 설전도

이스라엘의 대대적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충돌이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진정 기미 없이 격화하고 있다. 핵·군사 시설 공격으로 포문을 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로 공습 범위를 확대했고 이란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이스라엘과 이란은 가혹한 응징을 선언하며 공격 강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 6차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대(對)이란 공격 이틀째인 14일(현지시간) 밤부터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란 석유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의 주요 휘발유 저장고를 공격해 연쇄적인 폭발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테헤란 전역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이어졌고, 테헤란 주변의 산으로 불길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이란 언론들은 남부 걸프해역에 있는 이란 최대의 가스 정제공장 중 하나인 사우스파르스 가스전도 이스라엘 무인기(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서부의 지대지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저장고와 발사대가 있는 지하 시설도 공습했다.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100기에 가까운 미사일을 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섰다. 이란 역시 15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속속당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상공은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요격으로 인한 섬광과 폭발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가 있는 북부 도시 하이파도 표적이 됐다.

양국은 여차하면 전면적으로 갈 수 있다는 위협을 담은 거친 설전도 이어갔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이뤄질 공격에 비하면 지금까지의 공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협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하메네이(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다면 테헤란은 불에 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 제공권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란 방공망 위협을 제거한 첫 공격 덕에 수십대의 비행기가 테헤란 상공을 휘저었다"고 말했다.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우방이자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의 세바즈 사리프 총리와 통화하면서 "시오니스트(이스라엘)가 침략을 계속한다면 이란군으로부터 더욱 가혹하고 강력한 대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생일 군사 퍼레이드

미국워싱턴 DC에서 14일(현지시간) 육군 창설250주년을 기념하는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반면 같은 날 미국 독립혁명의 상징 도시인 필라델피아에 10만명, 뉴욕에서는 5만명이 각각 시위에 참여하는 등 미국 전역에서는 '반(反)트럼프 시위'가 진행됐다. 시위대는 "노 킹스"(미국에 왕은 없다), "힘은 우리에게 있다", "트럼프 아웃"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했다. /연합뉴스

충돌 격화 속에 15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은 결국 취소됐다.

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압바스 아라키 이란 외무장관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통화하면서 "시오니스트 정권의 야만성이 계속되

는 상황에서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하지만 당장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스라엘의 동맹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이란과 우호적 관계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군사 대결을 끝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 전남도 예쁜정원 대상에 보성군 '우성정원'

### 완도 '바하 정원' 생활권정원 최우수

보성군 '우성정원'이 전남도가 선정한 '2025 예쁜정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에 수상했다.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전남도가 도민이 직접 정원을 다해 가꾼 정원을 발굴해 정원문화 확대 및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콘테스트는 개인 정원와 생활권 정원 부분으로 진행, 총 15개 사군, 40점이 응모한 결과 우성정원(정원주 이경춘)이 1위에 선정됐다.

우성정원은 추동저수지가 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부부가 30여 년간 수내을 연못, 벚꽃길, 백합길 등 다양한 볼거리를 꾸며냈다.

심사위원단은 디자인과 심미성, 식재와 소재의 다양성, 완성도 등을 종합해 평가했다.

생활권정원 최우수상에는 완도 '바하 정원', 우수상에는 나주 '이화림'이 선정됐고, 개인 정원 부

문은 최우수상 여수 '가사리 꽃남이네'와 장흥 '정하대', 우수상에는 순천 '숙희의 뜰'과 완도 '아내의 정원'이 선정됐다.

여수 'Lydia정원'과 담양 '까망감정원', 순천북읍교회 매화정원은 특별상을 받았다.

올해로 6회째인 예쁜정원 콘테스트는 전국에서 관심을 받는 우수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48곳의 우수정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순천 '화가의 정원산책', 해남 '문가든', '비원', 보성 '성림정원' 등 11곳은 민간정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전남도는 시상식을 통해 '전라남도 예쁜정원' 현판과 상패,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앞으로도 우수정원을 발굴하고 도민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도록 전남의 정원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李 대통령 '장남' 조용한 비공개 결혼식

### 가족·친지·지인 등 참석 가족행사로...소년공시절 친구들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서 비공개로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을 지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가족 행사로 계획된 결혼식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초청됐다.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도 일부 참석했다.

예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이 치러졌고, 대통령의 가족간 사랑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고난을 서로 위로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행복한 표정 가득하던 이 대통령께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덕담을 건네시려다가 목이 메어 바로 말을 잊지도 못하셨다"며 "예식을 마치며 신랑과 신부가 두 내외에게 인사를 드릴 때도 네 식구 서로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하고 앞날을 축복하며 눈물 뚝배기에 비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일했던 '오리엔트

시계 공장'의 동료들도 결혼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식장 밖에서 이들을 만났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어디 친구들이세요?"라고 묻자 이 대통령이 "오리엔트 시계 공장 친구들입니다"라고 소개해 반갑게 인사했다고 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 장남 결혼식에 참석한 소식을 전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주례 대신 이 대통령님이 인사 겸 덕담을 했는데, 감정에 복받치듯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웃잔등이 시큰했다"며 "평범한 아버지의 인간적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을 보면서 참 잘 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민을 위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시고 모든 가정처럼 대통령님 가족들도 행복하기를 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자동납부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세액공제

광주시가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부자에게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한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정기분 세액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 초에 1년치를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 신주발행(제3자 배정) 공고

상법 제418조 4항 및 당사 정관 제11조의 9 항에 의거 2025년 6월 15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음-

- 신주의 발행목적: 재무구조개선
-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20,000주
- 신주식의 발행가액: 금5,000원 (액면금 5,000원)
- 신주식의 인수방법: 제3자 배정
- 신주식의 납입기일: 2025년 7월 1일

2025년 6월 16일  
농업회사법인 한농민 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대서면 고흥로 4127-5  
대표이사 이병국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한연식(511206-1XXXXXX)  
• 최후주소: 광주 동구 경양로277번길 5-5(계림동)  
피상속인 망 한연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5년 495호로 신청하여 2025년 6월 1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6월 16일  
• 상속인: 한송이(821212-2XXXXXX)  
순천시 해룡면 연향로 166, 201동 2302호(대왕로제비암-센트럴)  
• 신고기간: 2025. 6. 16. ~ 2025. 8. 26.  
• 채권신고처: 상속인 한송이의 주소

kwangju.co.kr  
광주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